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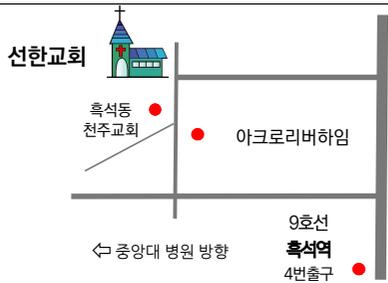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4장 (통일찬송가 13장)
교 독 문	교독문 39 (시편 95편)
찬 양 과 경 배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
대 표 기 도	윤호중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7장 21~23절
설 교	천국에 들어갈 자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를 선택하라 (잠8:1-21)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삼상8장~삼하23장]
4.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로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기간: 11월 15일 까지)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수험생을 위한 기도

-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손진강, 손가은 / 수능일: 2020년 12월 3일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2. 수시모집 지원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3.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4.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이상송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로 드리기를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기를

가정예배

창문과 거울

찬송 :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

본문 : 마태복음 21장 33~46절

말씀 : 창문과 거울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창문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밖의 풍경도 보입니다. 비가 올 때는 빗방울이 보이고, 눈이 올 때는 눈발이 날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입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면 내 모습은 안 보이고 전부 다른 사람, 다른 사물만 보입니다.

반면에 거울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내 모습, 내 얼굴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창문과 거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문으로는 남을 보지만 거울로는 나를 봅니다.

예수님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받고 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세는 안 주고 종들을 늘 썬 두들겨 패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아예 죽여 버리고 말았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38절)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아주 못된 놈들이네” 하며 혀를 끌끌 찼어요.

청중 중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빗댄 것임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45절)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그 비유가 누구를 빗댄 것인지 몰랐던 이유는 창문을 내다보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로 들었어요. 폭력을 행사한 악한 농부들이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무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들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유를 듣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은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이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창문으로 읽으면 다 남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찡림도 없고 무덤덤합니다. 그러나 거울로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 내 얘기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반항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도망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애통하고 전부 다 내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감동이 옵니다. 설교도 거울로 들어야 해요. 거울로 들으면 설교 말씀 전부가 나더러 하는 말로 들립니다.

창문으로 보는 사람은 남의 흠집만 보이기 때문에 늘 남을 비평하고 헐뜯는 말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울로 보는 사람은 달라요. 거울로 보면 내 모습이 비치니까 내 잘못 내 허물 내 죄 내 실수만 보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늘 회개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눈이 새로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천국에 들어갈 자 (마7:21-23)

서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지만 가짜 신앙도 있습니다.

1. 진짜와 가짜 구별

- (1)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자(21절)
- (2)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21절)
- (3) 예언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22절/마24:24)
- (4) 진짜와 가짜는 그날(심판날)에 확실히 밝혀진다(23절)

본문

2. 교훈

- (1)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였는가?
- (2)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가?
- (3)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고전9:27)?

결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참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열국의 멸망 예언 날짜 : 10월 19일
찬양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시되
본문	예레미야 49:23~39
	<p>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따라서 다메섹에 대한 멸망 예언은 아람 왕국에 대한 멸망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이 이름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상태에 대해 선지자는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다메섹의 멸망은 풍요로운 도시였으나 범죄로 인해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비교됩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게달과 하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게달과 하술의 장막과 양 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외칠 것을 명하셨습니다.</p> <p>엘람 족속은 바벨론 동쪽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파상적으로 공격해 오는 바벨론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 무서운 진노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엘람의 죄악을 보응하시기 위해 바벨론 군대의 달을 보내신 것입니다. 엘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주전 596-595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p>
묵상질문	내가 교만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회복의 그날과 그때
찬양과 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304)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인도네시아 보고르에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생형 동물원 '타만 사파리'가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환경에 민감하고 세계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파리 안에는 안전을 위해 훈련된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원숭이들은 사납고 무서운 소리를 자주 내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원숭이에게 어린아이가 과자를 줄 듯 말듯 약을 올리자 갑자기 그 원숭이가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아이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조련사가 황급히 와서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성난 원숭이의 눈앞에서 동물원 안쪽으로 멀리 던져 주었습니다. 그가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작은 바나나였습니다. 원숭이는 바로 아이의 팔을 놓고 바나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이를 위협하던니,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보자 더 이상 아이 손의 과자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p> <p>현재 내가 집착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오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p> <p>하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집착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것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나요?</p>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50:1~10
묵상포인트	<p>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잠시 쓰이는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된 듯 교만합니다. 교만한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교만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이요 교만한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심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임한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가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연합해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무엇을 숨김없이 공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셨나요?(1~3절)
적용하기	최근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쏟고 시간과 물질을 들인 일이 있나요? 그것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중에는 사라져 없어지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늘 제 생각과 마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제 발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예레미야 50:33~46
	<p>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을 치러 오는 자들이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같이 올라와서 바벨론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성을 견고히 쌓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왕은 모든 권세를 고레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p> <p>바벨론의 멸망 선포를 통해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교만만큼 물리치기 힘든 죄악은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신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늘 숙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p>
묵상질문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 가며
본문	예레미야 50:1~10
	<p>하나님께서서는 북방에서 한 나라를 보내시어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그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유다를 비롯하여 열방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은 이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그 땅이 황폐케 되어 그중에 거하는 자가 멀게 되며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p> <p>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재앙을 내리실 때 선민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 심판이 임하고 그 곳의 우상들이 진멸당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때 선민의 본토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임을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성취시키시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영영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큰 연합국을 북방으로부터 보내시어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칠 때 향로를 벌여 취하여 약탈할 것입니다. 그들의 화살은 숙련된 용사의 화살 같아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는 바사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때에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진멸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p>
묵상질문	나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본문	예레미야 50:11~20
	<p>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을 치는 무리에게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브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명한 대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므라다임과 브곳은 바벨론의 남부 지방과 동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숴졌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세계의 방망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정복케 했던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방망이가 된 바벨론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른 세력에 의해 부셔지고 말 것입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이 자신과 다투었으므로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교만히 행하면 징벌을 받습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대적이 되게 하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이 대적하시면 견고한 집도, 나라도 설 수가 없습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치라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군대에게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되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며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심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행한 그들의 악행을 보수하심이었습니니다. 그들은 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훼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p>
묵상질문	하나님과 다툰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83장 구름같은 이 세상
본문	예레미야 50:21~32
	<p>바벨론은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넘어짐과 패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는 자들에게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유다를 치면서 스스로의 강함을 자랑하였고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선민에게 포학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이 바벨론 거민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여 자궁하는 자의 위에 임하며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도 탈취당할 것입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바벨론을 치러 북방에서 오는 군대는 활과 창을 가진 자로서 잔인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홍용함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p>
묵상질문	왜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시나요?
오늘의 기도	